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설명절경축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월 1일 설명절경축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공연장소인 만수대에술극장은 혁명적대경사의 해에 맞이한 뜻깊은 민속명절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공연을 보게 된 참가자들의 걱정과 행복감이 차넘치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세련된 령도력,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이 땅우에 인민의 리상과 행복, 강국의 념원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새 세상,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설명절을 맞는 관람자들과 예술인들을 따듯이 축하하시었다. 관록있는 중요예술단체들이 출연한 공연무대에는 위대한 당, 위대한 조국을 칭송한 시대의 기념비적명곡들과 민족의 향취가 흘러넘치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장중한 주악과 서곡 《설날아 내려라》로 막을 올린 공연에서 출연자들은 반만년

오는 당중앙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심을 환희로운 노래선율에 담았다. 민요편곡이 설명절의 흥취를 돌구는 속에 애국주의주제의 명곡들이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세상에 돌도 없는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는 영광넘친 려정의 메아리가 되어 장내를 울리었다. 사회주의 내 조국을 몸과 맘 다 바쳐 길이 받들어갈 의지를 배가해주는 곡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우리의 힘과 지혜, 분투로써 힘차게 펼쳐가는 강국의 래일이 얼마나 희망차고 아름다운가를 음악서정속에 감명깊게 펼쳐 보이었다. 걸어온 길에 대한 가슴벅찬 긍지와 보람,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충만된 노래들과 경쾌하고도 박력있는

춤가락들로 엮여지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자력으로 부흥의 앞길을 개척하며 세대를 이어 빛내여온 사회주의 우리 집을 세상에 보란듯이 더 높이 떠올리려는 열의에 넘쳐 절찬의 박수를 보내었다. 걱정으로 돌아오른 무대우에 혁명승리의 위대한 대강을 펼치며 강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펼쳐가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인민의 일편단심의 노래들이 올라 공연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인민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모시고 당의 뜻에 끝까지 참되려는 일심일의 대군이 있기에 모든 승리와

영광은 우리의것이라는 철리를 새겨 주는 녀성독창과 혼성방창 《내 한생 따르리》,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당이어 그대 있기에》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끊임없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활력과 진군기상을 세차게 분출시킨 공연의 마감은 종곡 《설날아 내려라》로 환희롭게 장식되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열광적인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여 출연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뜻깊은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시기자

겨레의 가슴에 새겨진 절세위인의 통일외지

조국통일의 절박성

위대한 장군님의 겹쳐하신 품모에 배옥된 어느 한 나라의 주석은 조선의 통일문제가 지금 일정에 오르고있다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었다. 《현재 통일문제가 어떤 형편에 처해있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 최대의 숙망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며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는 국제정치의 초미의 문제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올해에 조국해방 40돐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지난 40년은 세계적인 진보와 변명을 이룩한 승리와 영광의 40년이었으나 전민족적견지에서 본다면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불행한 40년이었다고 하시었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우리 인민은 민족분열로 인한 재난과 불행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온 민족이 다같이 진보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수 있다고, 조선의 분열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함시적으로 위협하게 하는 긴장상태의 근원으로 되고있으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인민들은 조선의 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고있다고 하시었다. 계속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방침과 여러가지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제안들은 다 상대측에서 진실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실현될수 있으며 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매우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방안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조국통일의 장애

위대한 장군님의 사리정연하신 대답에 배옥된 주석은 두번째 질문을 올리었다. 《통일된 하나의 조선을 건설하는데서 장애로 되는것은 어떤것들입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한것은 그 질문에 몇마디로 대답하기에는 지나간 력사가 너무도 벅찼기때문이었다.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된 조선을 건설하는데서 장애로 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두개 조선》정책을 실시하고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인도 미국이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주되는 장애물도 미국이다.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철거하고 미국이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

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비록 커다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는다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었다. **조국통일의 전망**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주석은 세번째 질문을 드리었다. 《오늘 통일문제해결의 전망이 좋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환희 웃으시며 우리 나라 통일문제해결의 전망은 락관적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공화국 북반부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을 포함하여 전체 조선민족이 한결같이 통일을 원하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진보적인인민들도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바라고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

민들의 투쟁이 승리하는것은 그 무엇보다도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이라고 하시었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은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장애와 난관을 이겨내고 반드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고야말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이날 담화가 있는 후 그 주석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석한 해답, 뜨거운 민족애와 열화같은 통일외지에 탄복하여 이런 말을 남기었다. 조선인민은 위대하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제국주의아성,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 민족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조선인민은 정녕 위대하다. 그 위대성은 바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였기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민족분열의 력사를 끝장내고 동방의 강대국으로 빛날것이다. 이미 인류 력사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민족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증명하였다. 본시기자 박철남

이역의 동포들에게 안겨주신 노래 - 《반갑습니다》

주제80(1991)년 여름에 있는 일이다. 여러 차례 보천보전자악단의 일본공연준비사업을 료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함께 보천보전자악단에서 형성한 그 노래를 들려주시는데 본에 가면 공연 첫 순서에 불러줄 인사의 노래를 하나 잘 만들어야겠다고 교시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영문을 몰라하였다. 사실 그때까지 조국의 많은 예술인들이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였지만 이렇게 특별히 인사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간 레가 없었기때문이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무르익힌 노래의 종자와 양상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바다머리 일본땅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 동포애의 뜨거운 정을 노래의 구절구절에 담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창작자들은 노래 《반갑습니다》창조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사의 표현들도 다듬어주시고 때로는 주옥같은 선율도 찾아주시면서 흠잡을데 없는 노래로 완성하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었다. 이렇게 노래가 창작완성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함께 보천보전자악단에서 형성한 그 노래를 들려주시는데 본에 가면 공연 첫 순서에 불러줄 인사의 노래를 하나 잘 만들어야겠다고 교시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영문을 몰라하였다. 사실 그때까지 조국의 많은 예술인들이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였지만 이렇게 특별히 인사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간 레가 없었기때문이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무르익힌 노래의 종자와 양상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바다머리 일본땅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 동포애의 뜨거운 정을 노래의 구절구절에 담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창작자들은 노래 《반갑습니다》창조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사의 표현들도 다듬어주시고 때로는 주옥같은 선율도 찾아주시면서 흠잡을데 없는 노래로 완성하도록 깊은

은 흥분된 심정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 《반갑습니다》는 잘되었다고, 아마 동포들을 만나 이 노래를 부르면 총련일군들과 우리 동포들이 다 좋아할것이라고, 앞으로 일본에 들어가는 우리 예술단은 처음에 이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시작하는것을 전통화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노래 《반갑습니다》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재일동포모두에게 보내시는 축복의 인사로 공연 첫 종목에 오르게 되었다. 그해 10월 보천보전자악단이 일본 도쿄의 《니혼세이 내 긴강》에서 공연의 첫막을 올린 그날부터 일본전국에 《보천보선풍》을 제일 먼저 불어온 이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동포애와 어머니조국의 한없는 사랑을 담아신고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울리었다. 정녕 노래 《반갑습니다》는 한편의 노래이기 전에 재일동포들을 극진히 위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 이 세상 있어본적 없고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은혜로운 사랑이었다. 본시기자



보천보전자악단의 일본방문공연중에서 (1991년)